

“광주는 이집트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광주인권평화재단, 5·18기념재단, 광주YMCA 잇따라 표명

30년 독재 정치를 해온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1주일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민주·인권’의 도시인 광주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5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 민주주의의 본거지로 자리잡은 광주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의 민주화를 열원하며 지원에 나선 것이다. 1986년 필리핀 ‘피플파워’, 1989년 천안문사태는 물론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던 5·18정신이 이집트 사태를 통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김양래 광주인권평화재단 사무국장은 지난 31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집트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며 “이집트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로운 집회를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진압했으며 이집트 국민들의 안전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측은 이날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이집트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이집트에 있는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사진을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재단은 향후 이집트 국민들에게 지지 메시지를 보내고 이집트의 민주화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앞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준태 5·18기념재단 이사장도 이날 “이집트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며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꺾으려는 이집트 정부의 처사는 80년 5월 당시 광주

가 처했던 현실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미 일주일 동안의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국가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경찰의 무력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광주 YMCA 안경환 기획협력부장도 “이집트와 같은 상황을 겪었던 한국이 이집트의 현 상황을 침묵하는 것은 윤담치 않다”며 “특히 민주·평화·인권의 도시인 광주가 민주화를 갈망하는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광주 YMCA는 이집트 민주화운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SK건설 돌연 “F1서 빠지겠다”

KAVO 지분·채무 전남도에 인도 통보…道 “협의 통해 절충 모색”

F1(포틀러) 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카보)의 대주주인 SK건설이 ‘시공사 주식 매도권’을 행사해 카보내 모든 지분과 채무를 전남도에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조만간 SK건설의 모든 지분과 채무를 인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카보의 7개 주주사 중 최대 지분을 보유한 SK의 이같은 행보가 자칫 향후 F1 대회부터 발을 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10월 열리는 2011년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1일 카보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해 말 카보내 지분(24.67%·출자금 148억)과 경주장 건설을 위해 끌어들이는 PF 대출금 1980억원에 대한 채무 보증액(448억)을 넘기겠다고 전남도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식 매도권 행사는 SK 건설사가 카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와 맺은 ‘건설투자자가 주식 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공출자자가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전남도는 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까지 SK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인수는 KAVO의 시가가치를 평가해 결정하도록 했다.

카보가 상사되지 않은데, 지난 대회가 막대한 적자로 수익성 창출에 실패한 점 등을 감안하면 평가액이 SK가 출자한 금액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게 카보 안팎의 해석이다.

문제는 SK의 PF 채무보증액을 비롯해 카보 주주사인 엠브릿지홀딩스(MBH)의 보유지분 및 채무보증액까지 전남도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MBH는 당초 17%의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F1코리아 그랑프리 직후

SK건설이 무상으로 인수했다. MBH에 투자했던 금광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금광이 섰던 보증액(337억)에 대한 채무 대책이 어려워지자 SK건설이 이를 연대보증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남도가 SK건설을 대신한 투자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SK의 채무보증액 488억과 MBH의 채무보증액 337억, 여기에 MBH의 출자금(102억원) 전액을 전남도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올 대회 운영비(7800억)도 200억원만 확보했고 경주장 추가 건설비(1025억)도 일부만 확보한 데다, 카보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390억원) 해결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SK건설의 ‘음성’ 행사는 전남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건설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같은 협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라며 “SK측의 요구 조건을 무조건 들어줄 수 없는 만큼 자체 방안을 마련, SK와 협의를 통해 절충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SK의 시공사 주식 매도권 행사가 F1 대회에서 빠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SK이외에 F1 대회 및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 개발 등에 참여할 다른 재무적 투자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보는 F1 대회 개최를 위해 전남도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 만든 회사로, MBH 보유 지분을 17%를 인수한 SK건설(41.67%)과 전남도(28.83%), 전남개발공사(15%), 신한은행(6.67%), 농협중앙회(6.67%), 광주은행(1.17%) 등이 출자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구제역 전국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북구청 농축산유통팀 직원들이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동광주요금소 입구 13곳에 방역장비를 설치, 광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33명이 24시간 3교대로 방역활동을 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성 구제역 음성 판명

전남도 안도속 방역 만전

‘청정 지역’인 장성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판명되자 전남도 방역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관련기사 3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장성군 장성을 한 한우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달 17일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뒤 암소 2마리의 젖꼭지가 부어오르고 송아지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농장주가 신고를 했다. 전남도 등은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정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 양산의 돼지 농가에서 주

가로 구제역이 발생한다. 설 명절 대규모 이동이 우려되는 만큼 축산 농가를 상대로 한 집중 예방활동을 벌이는 한편, 270개소의 방역 초소를 통한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또 51만3000마리 분량의 구제역 예방 백신을 확보, 이날 도내 19개 시·군의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

을 추가로 실시했다. 전남도는 앞서 소 54만8000마리, 돼지 24만3000마리 등 총 79만1000마리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을 마무리한 상태다.

전남도는 오는 3일 추가 백신을 공급받는대로 나주·고흥·진도 등 3개 시·군 돼지에 대해서도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설을 맞아 본격적인 인구 이동이 이날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나들목 등에 있는 이동통제 초소에 군 병력 등 인력을 보강하고 백신 접종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올 광주 수출 150억달러 돌파할 듯

삼성전자 직접 수출 기아차도 호조 예상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삼성광주전자)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얼마나 될까? 3억달러다. 왜 이렇게 적은 걸까.

지난해 삼성광주전자가 생산·수출한 생활가전은 28억달러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삼성광주전자로 잡힌 수출통계는 3억달러에 불과했다. 나머지 25억달러는 삼성전자의 수출 뒤편에 집계됐다. 삼성광주전자는 삼성전자에 납품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광주지역 가전제품의 수출은 삼성광주전자의 실

적이 빠져 21억달러에 그쳤다. 올해는 어떨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역별 수출통계의 경우 생산지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수출 실적은 광주지역으로 잡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광주지역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지난해보다 무려 30% 이상 증가한 150억달러를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지역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수출은 115

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88억달러)보다 무려 30.4%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와 가전의 수출 신장에 힘입은 결과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35억8200만달러로 전년보다 30.0% 증가했고, 반도체 15.1%(수출액 23억8100만달러), 가전제품 31.7%(21억5400만달러), 기계류 57.6%(16억7200만달러), 고무·타이어 55.6%(10억8000만달러) 각각 신장됐다.

지난해 고공행진을 보인 광주지역 수출은 올해 더 성장해 150억달

러를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광주지역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수출 실적이 올해부터 집계돼 최소 25억달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해 50만대 생산체제 전환을 완료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올해는 10억달러 이상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기아차 광주공장 수출 증가만 더해도 광주지역 수출은 35억달러가 늘어 150억달러 달성은 무난하다는 계산이다.

/박정욱기자 jvpark@kwangju.co.kr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위 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라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VIP정회원
- 입회금액: 3억3000만원 - 모집인원: 20명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월 1회 18홀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월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무기명카드 1매발급; 그린피 50%할인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해피정회원
- 입회금액: 1억원 - 모집인원: 49명
- 회원특전: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 A형, B형, C형 중 선택(1)
A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B형 지정회원 미션택시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우대혜택
C형 무기명카드 1매: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월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제공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주중 / 평일회원
- 입회금액: 3300만원 - 모집인원: 50명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선 할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VIP회원 및 해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Fax. 061-330-5009